

Pudd'nhead Wilson과 남부 공동체 정체성의 위기

이진준

*Pudd'nhead Wilson*에서 Mark Twain은 남북전쟁 전의 남부사회가 지닌 공동체의 위기, 노예제도와 인간의 본성 같은 중요한 문제들을 제기한다. 그런 문제들은 남부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미국사회 전체가 공유하고 있는 경험이며, 특히 노예제도는 흑백 인종문제라는 미국사회의 기본적인 모순을 제공하는 단초이다. 그런 인종문제의 모순은 Twain이 이 작품을 쓴 1890년대에 이미 극단적으로 드러난다. 따라서 그가 1890년대라는 시대 상황에서 노예제도 폐지 문제가 미국사회의 전면에서 등장하기 시작한 남북전쟁 이전 시기(1830-50년대)의 남부사회를 다시 탐구한 것은 당대의 인종문제를 되짚어보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더구나 그가 이 작품에서 그런 문제들을 다루는 방법은 *The Adventures of Huckleberry Finn*과 같은 이전의 작품들에서보다 더 신랄하고 적나라한 면이 있다. 그는 이 소설에서 각 장을 '일력(calendar)'과 본문으로 나누는 독특한 서술 구조를 이용하고 더욱 거친 풍자와 해학을 구사함으로써 당대 사회에 대한 비판을 좀더 직접적으로 드러내보이는데, 그런 특징들이 이 작품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이 작품에 대한 좀더 구체적인 논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러한 몇가지 다양한 해석들을 살펴보는 것은 이 작품이 지닌 의미들을 밝히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Leslie A. Fiedler는 이 소설을 *Huckleberry Finn*의 속편으로 보고 그것과의 관련 속에서 이 소설이 지니는 상징적 의미를 추적한다. 그에 따르면, 강이 흘러가는 곳은 파렴치하고 잔인한 노예제도가 보여주는 궁극적인 공포의 세계이고, 이 소설의 줄거리는 멕시코 만을 향한 상징적인 흐름, 다시 말하자면 "물의 아버지가 위대한 모성의 바다와 합류하기 위해 하는 이동(the movement of the Father of Waters toward a confluence with the great maternal sea)"¹⁾이다. 그리고 이 소설은 한 지방에 특유한 편견을 통해 인간이 죄와 운명에 얽혀드는 더 큰 보편적인 양상을 보여준다고 한다. Arlin Turner는 이 작품이 Twain이 원래 의도했던 쌍둥이 이야기에서 흑인 문제가 중요하게 부각되는 소설로 바뀌는 과정을 중시한다. 그러면서 그는 이 소설에서 남부 귀족사회의 근간이 되고 있는 인종적 우월의식과 노예

1) Leslie A. Fiedler, *Love and Death in the American Novel*(1960)(New York: Stein and Day, 1982), p.404. 이 책에 나오는 *Pudd'nhead Wilson*에 대한 그의 해석은 사실 이보다 앞서 발표한 "As Free as Any Cretur ..." (Henry Nash Smith, *Mark Twain: A Collection of Critical Essays*(Englewood Cliffs: Prentice-Hall, Inc., 1963), pp.130-139)를 거의 그대로 다시 옮겨 쓴 것이나 다름없지만 이 책에서는 상징적인 해석이 훨씬 더 강화되어 있다.

제도를 지탱시켜 주는 의식(cult) 및 규범(code)의 허구성을 지적한다. 반면에 James E. Caron은 이 소설의 각 장의 서두에 붙어 있는 ‘바보 윌슨의 일력’과 본문의 상관성을 밝히려 고 한다. 그는 Twain이 이런 복합적인 기법을 이용한 것은 남북전쟁 전의 남부의 ‘과장된 이야기들(tall tales)’의 특징을 드러내보이려는 전략의 일부라고 주장한다. 또한 포스트모더니즘적 해석을 비추는 Lawrence Howe의 경우는 Twain이 이 소설에서 Edgar Allan Poe의 탐정소설 기법을 이용해서 오히려 그를 회화(parody)하고 그의 인종차별주의에 대한 보복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소설은 “법의 안정된 폐쇄성을 파괴하는 징후들을 검열함으로써 의미를 고정하는 탐정소설(the kind of detective fiction that fixes meaning by censoring the signs that disrupt the stable closure of the law)”이 아니라 도리어 탐정소설을 회화한 것으로써 “진실에 반하는 인종차별주의와 같은 거짓된 진실의 억압(the oppression of a fraudulent truth like racism against itself)”²⁾을 뒤엎는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그는 이 소설에 잠재되어 있는 Twain의 내면화된 인종적 편견을 파헤치고, 백인과 흑인 사이의 도식적인 구분을 전복하려고 시도한다.

위의 주장들은 Twain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보여주는 몇가지 예이다. 이 가운데서도 Turner의 비평은 Twain이 이 소설에서 흑인 인물들을 그리는 과정을 추적하고 남부 귀족제도의 허구성을 탐구함으로써 남부사회가 지닌 속성의 일단을 드러내보인다는 점에서 주목할만하다. 이와는 달리 Fiedler는 이 소설의 풍부한 상징성을 밝히는 미덕에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상징적인 해석에 매달리게 되어 이 작품이 구현하고 있는 현실적인 측면들을 축소하는 경향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Twain의 문학이 구현하고 있는 풍부한 상징이나 풍자도 사실은 현실을 더욱 예리하게 드러내보이는 유용한 수단이라고 한다면 그것들을 현실과 연결 지어 볼 때 그의 문학적 성취를 좀더 폭넓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Pudd'nhead Wilson*이 처음 출판된 것은 1894년이며, 이 소설의 시대적 배경은 1830년에서 1853년까지이다. 그러면 1890년대라는 시대상황에서 소설 속의 시대가 지니는 의미는 무엇인가 하는 물음이 떠오를 수 있다. 물론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며 엄밀한 사실적인 검토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작가 개인의 문제를 떠나서 시대적 맥락에서 볼 때 1890년대는 미국 역사상 흑백관계가 그 어떤 시기보다도 악화된 때였다. 남북전쟁에 따른 노예제 폐지 이후부터 재건시대까지의 짧은 시기를 빼고는 흑인의 지위는 지극히 열악한 상황이었으며, “특히 1890년대에는 가장 경직된 형태의 흑백관계가 성립되어, 흑백분리(segregation), 인종차별(discrimination), 백인 우월주의(white supremacy)가 극에 달하였다.”³⁾ 그러므로 그런 시대 상황에서 그러한 흑백의 위기를 배제한 한 시대로서 남북전쟁 직전의 시대를 돌이켜본다는 것은 Twain에게는 중요한 의미를 지녔을 수 있다. 더구나 흑인에 대해 강한 애정을 지녔고 흑인에 대한 인종적인 편견에 저항한 그의 입장을 고려한다면 이런 주장은 결코 억지만은 아닐 것이다. 그는 자서전에서 어린 시절을 회상하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2) Lawrence Howe, "Race, Genealogy, and Genre in Mark Twain's *Pudd'nhead Wilson*," *Nineteenth Century Literature*, 1992, March, 46(4), p. 510.

3) 황혜성, 「19세기말 흑인의 지위: 1890년대를 중심으로」, 이보형(편), 『미국 역사의 새 발견』(서울: 소나무, 1991), p. 123.

모든 흑인들은 우리 친구였다. ... 내가 그의 종족[흑인]에 대한 애정과 그 종족의 훌륭한 자질들 중의 어떤 것에 대한 이해를 지니게 된 것은 그 농장에서였다. 이러한 감정과 이러한 평가는 60년 이상의 시험을 견뎌왔다.

All the Negroes were friends of ours. ... It was on the farm that I got my strong liking for his race and my appreciation of certain of its fine qualities. This feeling and this estimate have stood the test of sixty years and more.⁴⁾

물론 흑인에 대한 Twain의 애정에는 온정주의적 요소가 깔려 있는 것도 사실이며, 그의 *Pudd'nhead Wilson*이 인종차별적 독단을 제거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재건시기에 뒤따라온 인종적 히스테리 분위기의 한 원인이 된 ‘백인으로 살아감’의 공포(the fear of ‘passing’ that contributed to the climate of racial hysteria in the wake of Reconstruction)”⁵⁾를 추인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Lawrence Howe의 다분히 전복적인 발언을 주목할 필요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히 ‘잭슨 시대(the Jacksonian Age)’라고 불리는, 미국 역사상 거의 모든 분야에서 미증유의 팽창을 경험하고 있었으며, 또한 노예제도에 대한 비판이 역사의 전면에 떠오르기 시작하던 1830년대 이후의 사회에서 그런 변화와는 단절된 무풍지대처럼 보이는 Dawson's Landing의 세계가 시사하는 바는 크다. Dawson's Landing이 드러내보이는 것처럼 노예제도에 대한 도덕적인 회의나 반성이 전혀 없이 그것을 당연시하는 백인들의 모습에서 거꾸로 노예들이 해방되고 그들의 권리를 주장할 때 백인들이 내보일 광적인 반감을 더 선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결국 1890년대의 흑인에 대한 백인의 극단적인 편견과 박해는 노예제 시대 백인들이 흑인들에 대해 보인 반응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그 뒷면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Dawson's Landing이라는 걸보기에 잘 짜여진 것 같은 한 남서부 공동체를 분석함으로써 그 세계에서의 백인간 및 백인과 흑인 사이의 역학관계를 탐구하고 그 세계의 실체를 밝혀보고자 한다.

II

이 소설의 배경인 Dawson's Landing은 미조리 주 St. Louis에서 미시시피 강을 따라 반나절쯤 내려가면 나오는 소도시이다. 이곳에 1830년 어느 날 David Wilson이라는 뉴욕 출신의 25세된 젊은이가 정착하러 온다. 그러나 그는 이곳에 온 첫날 우연한 농담 한 마디로 ‘바보 윌슨’이라는 별명이 붙게 되어 변호사로 성공하려는 꿈이 좌절된다. 그래서 그는 주민들의 지문을 뜨고 손금을 보는 것을 취미로 삼은 채 소외된 삶을 이어간다. 한편 Percy Driscoll이라는 한 사업가가 집에서 조그만 도둑질이 일어나자 흑인 노예들을 닥달하게 되고 이에 충격을 받은 Roxana라는 흑인 하녀는 같은 날 태어난 주인 아들과 자기 아이를 바꿔치기한다. 그리하여 주인의 아들은 Chambers라는 이름의 노예로, 그녀의 아이는 Tom Driscoll이라는 이름으로 성장하게 된다. 그 후 15년이 지난 1845년에 Percy가 죽으면서 Roxy(Roxana의 애칭)를 해방시켜주고, Tom을 형인 York Driscoll의 양자로 보낸다. 그

4) Mark Twain, *The Autobiography of Mark Twain*(1917), ed. Charles Neider(New York: Dell Publishing Co., 1970), p.10.

5) Lawrence Howe, p.497.

리하여 Roxy는 미시시피 강을 운항하는 여객선의 승무원으로 살아가고 Tom은 York 부부의 충애를 받으며 도박으로 방탕한 생활을 보낸다. 1853년 Roxy는 은행이 파산하는 바람에 8년 동안 번 돈을 다 날려 버리고 다시 Dawson's Landing으로 돌아와 Tom에게 도움을 요청하나 거절당하고 복수하려는 마음으로 그에게 그의 출생의 비밀을 털어놓게 된다. 한편 그 얼마 후 Luigi Capello와 Angelo Capello라는 이탈리아 귀족 쌍둥이가 이곳에 오게 되어 전 주민들로부터 환영을 받는다. 그런데 Tom이 어느 모임에서 Luigi에게 모욕을 당하자 York 판사가 아들 대신 그와 결투를 하게 되고 더구나 Luigi가 시의원에 출마하자 모든 수단을 다해 떨어뜨린다. 반면에 Wilson은 오랜 소외된 삶을 끝내고 시장이 된다. 그러는 사이 노름빛에 쪼들려 도둑질을 일삼던 Tom은 결국 자기 어머니인 Roxy를 '강 아래' (남부오지)에 팔고 의붓 아버지의 돈을 훔치려다 그를 죽이게 된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죄를 Capello 형제가 뒤집어 쓰게 되자 Wilson이 그들의 변호사로서 활약하게 되며 마침내 자신이 모아둔 지문을 이용해 Tom의 출생의 비밀을 캐내고 그의 범죄를 밝히게 되며 그래서 Tom은 '강 아래'로 팔려간다.

이상이 이 소설의 대체적인 줄거리이다. 이 줄거리에서도 보듯이 이 소설은 언뜻 보기에 는 아이 바퀴치기라는 멜로드라마적인 줄거리였다 당시까지는 낯설었던, 지문을 이용한 범인 체포라는 탐정소설적인 수법이 결합된 가벼운 소설처럼 여겨질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런 겉으로 드러난 줄거리 이상으로 이 소설은 Dawson's Landing이라는 공동체가 보여주는 결코 단순하지만은 않은 여러 의미들과, 특히 그 공동체의 밑바닥에 깊이 깔려 있는 노예제도 문제를 제기한다. 따라서 F.R. Leavis가 이 소설을 "위대한 작가의 대작(the masterly work of a great writer)"⁶⁾이라고 규정한 것은 눈여겨볼 만하다.

Dawson's Landing은 노예를 소유한 도시이다. 그러나 그곳은 '강 아래(down the river)'로 대변되는 '잔인한' 노예제도에 바탕을 둔 남부오지(the Deep South)의 농장지대와 구별되는 곳이다. 그곳은 문명의 변경지대로 비록 거의 정체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조금씩 변화하고 성장하며 "문명의 모든 유산을 간직하고 있는 사회(a society that has kept its full heritage of civilization)"⁷⁾이다. 더구나 이 소설의 서두에서 드러나는 이곳의 모습은 이상적인 전원도시에 가깝다. 거리는 잘 정비되고 가로수가 늘어서 있으며, 집집마다 온갖 꽃으로 장식된 뜰이 있고, 강에는 증기선이 한 시간마다 오르내리며 그곳을 더 큰 문명세계와 이어준다. 그리고 그곳의 사회 분위기는 당시까지 미국의 많은 중소도시에서 흔히 나타나는 청교도적인 엄격함과 보수성과 단조로움을 내보인다. 그러나 조금만 더 면밀하게 살펴보면 이런 평화스러운 모습 뒤에는 "좀더 억제된 형태의 부조화(a more subdued form of discord)"⁸⁾가 숨어 있다. 그 도시의 모든 하얗게 칠해진 집들의 외양들은 벽을 덮은 장미

6) F.R. Leavis, *Anna Karenina and Other Essays*(1967)(London: Chatto & Windus, 1973), p.121.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그의 비평은 분명히 과찬이며 우리가 선뜻 동의할 수 없는 많은 문제를 내보인다. 물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Richard Chase처럼 이 소설을 '예술에는 못미치는 작품(a work of near-art)' (Richard Chase, *The American Novel and Its Tradition*(1957)(Baltimore: The Johns Hopkins Univ. Press, 1980), p.156.)이라고 지나치게 폄하하는 것은 더욱 수긍하기 힘들다.

7) *Ibid.*, p.127.

8) George E. Toles, "Mark Twain and *Pudd'nhead Wilson*: A House Divided," *Novel: A Forum on Fiction*, 1982, Fall, 16(1), p.61.

덩굴이나 담쟁이 덩굴 따위로 거의 시야에서 가려져 있어 무엇인가 가리고 싶은 치부나 불길한 어떤 것을 느끼게 한다. 또한 그곳의 큰길에서 있는 이발소 푹말에서 보듯이 유럽에서는 고상하고 품위있는 가치를 대변하는 것들이 이곳에서는 천박하고 속된 것들로 변질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이 도시의 실체는 “도슨즈 랜딩은 노예소유 도시로, 그 도시의 뒤에는 노예 노동력을 이용한 풍부한 곡물과 육돈 지대가 있었다(Dawson's Landing was a slaveholding town, with a rich slave-worked grain and pork country back of it)”⁹⁾라는 한 마디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결국 이 도시가 누리고 있는 자유니 행복이니 평화니 하는 것들은 노예들의 희생 위에 성립된 부도덕한 것들이다.

사실 Dawson's Landing의 경제적 토대는 다른 노예소유 지역들과 마찬가지로 흑인 노동력의 착취에 있다. 그러면서도 백인들이 남부오지에서와는 달리 흑인들의 별다른 저항 없이 그들의 평온한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흑인들에게 끊임없이 주입시키는 '강 아래'라는 위협을 통해서이다. 이 '강 아래'라는 것은 흑인들에게는 그들의 모든 저항을 무력하게 만들 수 있을 만큼 커다란 위협이며 따라서 백인들에게는 더없이 편리한 지배 수단이다. 그런데 이런 위협은 단순히 잠재적이 위협이 아니라 Roxy나 Tom이 실제로 그곳으로 팔려간 것에서 보듯이 구체적인 현실이며 경험이다. 더구나 Roxy와 같은 노예들조차 서로 농담을 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협할 때 '강 아래'라는 말을 아무렇게나 스스럼없이 사용하는 데서 이미 그곳에서는 그런 것이 일상화되어 있으며 흑인들에게는 하나의 강박관념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Dawson's Landing 사람들이 흑인들을 지배하기 위해 이용하는 또 하나의 유용한 수단은 흑인들에 대한 온정주의이다. 이것은 “일반 주민의 감정은 사소한 이유 때문이거나 아무 이유도 없이 집안의 하인들을 그런 식으로 다루는 것['강 아래' 파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public sentiment did not approve of that way of treating family servants for light cause or for no cause)”(908)라는 말에서 잘 드러난다. 그들은 이런 온정주의를 통해 '강 아래'에 대해 자신들의 차별성을 주장하고 도덕적인 우월성과 만족감을 얻는다. 또한 이런 온정주의를 통해 흑인들의 저항의식을 마비시키고 그들의 순응을 끌어낸다. 결국 이런 온정주의는 위협과 더불어 흑인들에게는 양날을 가진 칼과 같은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Percy Driscoll이 도둑질한 하인들을 '강 아래' 팔지 않고 다른 곳에 팔기로 결정한 후 스스로에 대해 만족하는 데서 보듯이, 백인들은 그러한 온정주의를 진심으로 자신들의 도덕성과 관용의 표현으로 믿고 있다.

그는 자신이 고결하고 자비로운 일을 했다는 것을 알았으며 자신의 관대함에 대해 은밀히 아주 기뻐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는 그 사건을 일기장에 적어서는 나중에 자기 아들이 그것을 읽고 그래서 스스로 친절하고 인간적인 행동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들 수 있도록 했다.

He knew, himself, that he had done a noble and gracious thing, and was privately well pleased with his magnanimity: and that night he set the incident down in his diary, so that his son might read it in after years, and be thereby moved to deeds of gentleness and humanity himself. (899)

9) Mark Twain, *The Family Mark Twain*(New York: Harper & Brothers Publishers, 1935), p.892. 이하 이 책에서의 인용은 본문에 쪽수만 밝힘.

결국 Dawson's Landing은 어떤 식으로든 '강 아래'라는 것의 존재에 의해서만 자신의 존재를 규정하고 유지할 수 있는 세계이다. 즉 그곳은 북부와 남부오지의 완충지대로 양세계 사이에서 절묘한 균형을 지닐 때만이 그 자체의 질서를 유지할 수 있다. 다만 문제는 그곳 사람들이 노예제도에 대해 어떤 회의를 품거나 도덕적인 반성을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노예제도는 백인들에게는 당연히 받아들이는 삶의 전제조건이지 어떤 정의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그들에게는 노예들은 살아 있는 재산일 뿐이며 애초에 노예제도라는 전제에 대해 회의가 개입될 여지가 없다.

그런데 적어도 이 소설에서는 백인과 흑인을 구분하는 경계선이라는 것이 모호하다. 그들 사이를 구별하는 피부색의 차이는 Roxy와 Tom의 경우는 의미가 없다. Roxy는 그 피 속에 흑인의 피가 16분의 1, 그리고 Tom의 경우는 32분의 1 밖에 섞여 있지 않다. 따라서 겉으로는 그들은 백인들과 다를 것이 아무것도 없으며 다만 그들을 구분하는 것이 있다면 "허구적인 법과 관습(a fiction of law and custom)"(896) 뿐이다. 그러나 바로 이것이 그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유용한 수단이다. 백인들은 흑인들을 인종적 틀 속에 묶어두고 그들에게 계속해서 열등의식을 불어넣음으로써 자기들의 지배에 대한 도덕적인 정당성을 주장한다. 그러므로 Dawson's Landing에서 흑백의 차이는 쉽게 도덕적 판단의 기준으로 전환되어 백인들의 피는 선한 모든 가치를 대변하고 흑인의 피는 사악한 자질들을 나타내게 된다. 결국 혈통이란 "육체적이기보다는 도덕적인 특성들(moral rather than physical traits)"¹⁰⁾을 정당화하는 거짓된 수단이며, 더 나아가 기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편리한 수사(rhetoric)이다. 백인들은 현실적으로 효용성을 상실한 혈통의 구별을 관념의 세계로 끌어올림으로써 그것이 지닌 상징적 의미로 자신들의 불안정한 질서를 지탱한다.

혈통의 문제는 비단 흑인과 백인 사이에만이 아니라 백인들 사이에도 있으며, 이러한 혈통의 구분을 통해 남부의 독특한 귀족사회가 형성되게 되었다. Dawson's Landing에서도 백인사회는 버지니아의 일급 가문(the First Families of Virginia) 출신의 Driscoll 판사 집안과 Pembroke Howard 집안같은 이름있는 집안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로 나누어져 있다. 그리고 그런 전통적인 가문은 그 사회의 도덕적 규범의 중심을 이룬다.

버지니아의 일급 가문은 신사로 태어났다. 인생에서 그의 최고의 의무는 그 위대한 유산을 지키고 그것을 더럽혀지지 않은 채 간직하는 것이었다. 그는 자기 명예를 흠없이 지켜야 한다. 그런 법칙들은 그의 해도였다. 그의 항로는 그것 위에 표시되어 있었다. 만약 그가 그것에서 나침반의 반눈금만큼이라도 벗어난다면 그것은 그의 명예의 난파를 뜻했다. 말하자면 신사로서의 그의 계급으로부터 타락하는 것을 뜻했다.

The F.F. V. was born a gentleman: his highest duty in life was to watch over that great inheritance and keep it umsmirched. He must keep his honor spotless. Those laws were his chart: his course was marked out on it: if he swerved from it by so much as half a point of the compass it meant shipwreck to his honor: that is to say, degradation from his rank as a gentleman. (942)

10) Lee Clark Mitchell, "'De Nigger in You': Race or Training in *Pudd'nhead Wilson*?", *Nineteenth Century Literature*, 1987, December, 42(3), p.303.

그들에게 명예는 절대적인 가치이다. 그것은 법이나 종교를 뛰어넘는 것으로 자신들의 유일한 존재이유라고까지 할 수 있다. 그들은 명예를 지키고 그것을 실제 생활에서 드러내보임으로써 그 사회에서 주민들의 자발적인 동의와 복종을 이끌어낸다. 그러나 그들이 명예를 지킬 수 있는 원천은 Driscoll 판사나 Howard의 경우에서도 보듯이 노예를 이용한 부의 축적에 있다. 그들은 물질적인 부를 바탕으로 그 위에 전통이라는 가치를 덧씌움으로써 사회 내에서 자신들의 지위를 확고하게 한다. 사실 처음부터 버지니아의 일급 가문이라는 것이 남부에 있었던 것은 아니며 그것은 단지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화이다. 남부 사회에 관한 훌륭한 연구업적을 남긴 W.J. Cash에 따를 것 같으면, 역사적으로 볼 때 버지니아에서 소위 말하는 귀족 계급이 형성되기 시작한 것은 18세기에 와서였다. 버지니아의 몇몇 농장주들이 그들의 막대한 부를 바탕으로 사회적, 경제적으로 자신들의 지위를 높이고 그것을 세습함으로써 하나의 새로운 계급이라는 것이 형성될 토대가 마련된 것이다. 따라서 남부 귀족 계급의 토대는 거의 전적으로 “충분한 부의 소유(the possession of a sufficient property)”¹¹⁾에 있다. 이들은 흑인과 가난한 백인 노동력을 착취하고 자신들의 자식들을 북부와 영국의 명문 대학에 보냈으며, 그들은 그곳에서 George 왕조 시대의 관습과 예의를 배워서 그것들을 더욱 정교하게 계발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진정한 귀족들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고 또한 주위에 있는 “전통의 정교화와 전파(the elaboration and propagation of a tradition)”¹²⁾를 위해 의식적으로 노력한 사람들에 의해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물론 Dawson's Landing이 백인 사이의 계급차이에 의해서 엄격히 나누어져 있다는 뜻은 아니다. 오히려 이 사회는 적어도 겉으로는 자유롭고 민주적(democratic)인 모습을 보여 준다. 그러나 그 저변에 흐르는 도덕적 기준은 분명히 이들 버지니아 일급 가문들이 대변하는 보수적인 가치이다. 게다가 그들은 이 사회에서 실제적인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집단이다.

이러한 버지니아 일급 가문을 가장 잘 대변하는 사람이 Driscoll 판사이다. 그는 훌륭하고 공정하고 너그러우며 “그 지역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the person of most consequence in the community)”(910)이다. 그는 자신의 생각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며, 그의 의견은 절대적인 가치를 지니며 다른 사람의 비판을 허용하지 않는다. 종교적으로도 그는 ‘자유 사상가(free-thinker)’여서 어느 한 종파에 얽매이지 않는다. 그의 유일한 관심은 자신이 구현하고 있는 전통을 수호하고 명예를 유지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의 이런 처신이 그로 하여금 그 사회의 중심적 위치를 차지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들이다. 그러나 그가 내보이는 가치는 Luigi와의 결투에서 잘 나타나듯이 많은 경우 당대 사회에서 실제적인 의미를 지니는 것이라기보다는 그 사회를 유지하는 하나의 수사 내지 이데올로기이다.

Driscoll 판사는 Tom이 Luigi에게 모욕을 당해서 그를 법원에 고발했다는 말을 듣자 충격을 받고서 Tom을 “경악과 수치와 회의심이 뒤섞인 표정(a mixed expression of amazement and shame and incredulity)”으로 바라보며, 곧이어 자기 가문의 명예가 더럽혀졌다는데 대해 격렬하게 분노하여 Tom을 보고 “이 개 같은 놈! 이 쓰레기 같은 놈! 이 버러지 같은 놈!(You cur! You scum! You vermin!)” (944)이라고 고향을 지른다. 그리

11) W.J. Cash, *The Mind of the South*(1941)(New York: Alfred A. Knopf, Inc., 1968), p.7.

12) *Ibid.*, p.8.

고는 Tom에게 당장 Luigi에게 결투를 신청하라고 요구하지만 그가 거절하자 유서를 찢어 버리고, 며칠 후 판사 자신이 Luigi와 결투를 하게 된다. 그러나 이 결투라는 것이 Driscoll이 지낸 판사라는 지위를 고려하면 더욱 시대착오적인 면이 있다. 결투는 근대적 법이 확립되기 이전의 유럽사회나 옛 서부에서는 정의를 구현하는 한 가지 수단이 될 수 있지만 이미 Dawson's Landing같은 사회에서는 결투가 지니는 실제적인 의미는 완전히 사라지고 없다. 결투가 지니는 정의실현이라는 본질은 법정으로 넘어 갔으며 남은 것이라고는 그것이 상징하는 하나의 의식(cult)이나 형식 뿐이다. 그런데도 판사인 그가 법정의 권위를 부정하고 결투에 집착하는 것은 전통과 위엄의 본질이 사라지고 허위의식만이 남은 남부 문화의 속성을 보여준다. 결국 결투는 “시대에 뒤진 규범의 어리석은 자취(a silly vestige of an antiquated code)”¹³⁾로 결투하는 사람들에게 아무런 실제적인 위험도 주지 않는 의식이지만 바로 이것이 Driscoll로 하여금 Dawson's Landing에서 자신의 존경받는 지위를 유지하고 강화하게 하는 유효한 수단이다. 그는 그 의식을 통해 주민들에게 그들이 선망하는 버지니아 귀족 계급의 우월성과 권위와 위엄에 대한 환상 및 자기들의 사회가 그런 가치를 구현하고 있다는 허위의식에 심리적인 만족을 준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귀족 계급의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사이의 계급적인 차이를 확인시키는 중요한 수사적인 행위이기도 하다. 그것은 결투가 있고 나서 주민들이 보이는 열광적인 흥분에서도 드러난다. 그런 일이 그 도시에서 벌어진 것은 영광이었으며 그들의 눈에는 결투를 한 Driscoll 판사와 Luigi는 “인간의 명예의 정상(the summit of human honor)”(958)으로 비쳐졌다. 그러나 Driscoll이 보여주는 이런 모습은 그의 또 다른 일면인 냉혹한 성격과 연결되어 있다. 그는 자신의 권위에 대한 어떠한 도전도 용납하지 않는다. 그는 Luigi와의 결투를 치르고나서도 그들을 사회에서 도태시키려는 집념을 버리지 않는다. 그래서 Capello 형제가 시의원에게 출마하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들을 공격한다.

그는 그들을 모험주의자, 사기꾼, 촌극의 인간 쓰레기, 싸구려 구경거리에 미친 사람이라고 비웃었다. 그는 그들의 화려한 칭호를 무한히 조소하여 공격했다. 그는 그들이 귀족들로 가장한 뒷골목의 이발장이며 신사로 변장한 땅콩 장수, 원숭이 형제를 빼앗긴 풍각쟁이라고 말했다.

He scoffed at them as adventurers, mountebanks, side-show riff-raff, dime-museum freaks; he assailed their showy titles with measureless derision; he said they were back-alley barbers disguised as nobilities, peanut-peddlers masquerading as gentlemen, organ-grinders bereft of their brother monkey. (967)

그가 그들을 이렇게 비난하고 더구나 그들을 떨어뜨리기 위해 주민들을 돈으로 매수하는 데서 그가 지낸 버지니아 귀족 계급이라는 것의 허구성이 여실히 드러난다. 그는 명예와는 거리가 먼 한 사람의 정상배일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가 끝난 후 Luigi가 그에게 재결투를 요구하자 그가 살인을 한 비열한 인간이라는 평계로 결투에 응하지 않는다.

Dawson's Landing이 Wilson을 사회에서 완전히 고립시키는 반면에 Capello 형제를 열

13) Arlin Turner, "Mark Twain and the South: *Pudd'nhead Wilson*"(1968), *Mark Twain: A Collection of Criticism*, ed. Dean Morgan Schmitter(New York: McGraw-Hill Book Co., 1974), p.131.

광적으로 환영하는 데서 그 사회가 지닌 속성이 그대로 드러난다. 그들은 버지니아 귀족 계급을 선망하고 Driscoll의 결투를 귀족적 가치의 구현으로 보았듯이 Capello 형제는 그들이 흠모하는 귀족 사회 자체였다. Capello 형제는 유럽의 귀족으로 이들의 출현은 그들에게는 “영광이라는 위대한 단어의 진짜 의미(the real meaning of that great word Glory)” (915)를 일깨워주는 사건이었다. 이런 인식은 Driscoll 판사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어서 그는 누구보다도 먼저 그들을 자기 집으로 초대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자신이 그들과 동등함을 은연중에 과시한다. 그러나 Dawson's Landing의 여론이라는 것은 진실을 볼 능력이 결여된 천박한 수준의 것이다. 그러기에 그들은 Capello 형제가 구현하고 있는 귀족 계급의 진정한 면모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허상만을 좇고 있으며 자신들의 낭만적인 환상이 식자 쉽게 Driscoll이나 Tom의 거짓된 선동에 좌우된다.

한편 Dawson's Landing은 귀족 계급에 대한 숭배와는 달리 동부에 대해서는 강한 혐오감을 지니고 있다. 그들은 Tom이 1849년부터 2년 동안 Yale에 다닌 후 그곳의 유행을 들여오자 분개하고 모욕감을 느끼게 되며 늙은 흑인 병신으로 하여금 그를 모욕하게 만든다. 그들의 눈에는 동부의 문화는 타락하고 경박하며 더 나아가 그들의 “활기 없는 시골도시(the dull country-town)” (910)의 질서를 파괴시킬 위험을 지니고 있다. 물론 그들의 이러한 민감한 반응에는 동부의 자유주의 사상에 대한 경계심이 배어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다른 면에서 볼 때 동부 사회가 당당히 이미 상당히 진행된 산업주의에 오염되어 있었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다. 이것은 Tom이 그곳에서 음주와 도박을 배워온 것에서 드러난다. 그렇다고 Dawson's Landing이 당시의 산업주의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었던 것은 아니다. 실제로 Driscoll 판사의 동생인 Percy는 부동산 투기로 치부를 하며 또한 끝내는 그것으로 해서 망한다는 점에서 그 사회의 저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감지할 수 있다. 아무튼 이런 동부와 서부의 대립적인 맥락을 고려한다면 Wilson이 Dawson's Landing에서 고립되는 이유를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다.

Wilson은 솔직하고 사교성이 있으며 강한 지적 호기심을 지닌 인물이다. 따라서 모두들 그를 좋아하고 어디에서나 그를 받아들여주지만 그는 누구에게도 진지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그는 기껏해야 Tom이 그를 대하는 데서 잘 나타나듯이 심심풀이 말상대나 놀림감이 되기 일쑤이다. 그나마 그에 대해 어느 정도 제대로 알아주는 사람이라면 Driscoll 판사 정도이다. 그가 Dawson's Landing에서 그런 대우를 받는 것은 물론 그가 그곳에 이사를 오자마자 저지른 우연한 농담으로 해서 ‘바보’라는 낙인이 찍힌 때문이기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가 하는 지문 채취나 손금보기 같은 이상한 취미에도 원인이 있다. 그러나 그곳 사람들이 그에 대해 갖는 편견의 밑바닥에는 그가 북부 뉴욕 주 출신이라는 점에 대한 불신이 깔려 있다고 볼 수 있다. 그에 대한 그런 근본적인 불신이 그가 지닌 이상한 취미와 결합되어 오랜 세월 동안 그를 들어킬 수 없을 정도로 그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이 되게 만든다. 반면에 그가 그 사회에 완전히 편입되지 못함으로써 얻는 면도 있다. 그는 Dawson's Landing이 보여주는 천박하고 편협한 여론에서 어느정도 벗어날 수 있으며 그 결과 자신의 지적 탐구를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가 그 사회의 편견이나 여론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니며 많은 경우 그 역시 그곳의 편협한 정서에 젖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Driscoll 판사의 살인 사건에서 여론을 거스르고 Capello 형제의 변호를 맡을 만큼의 자유의지는 지니고 있다.

그는 자신이 자란 북부 산업사회의 과학적 합리주의와 전래적인 사이비 과학이 결합된 인물이다. 그런 면에서 Tom이 그를 가리켜 “대단한 과학자(a great scientist)”이며 “예언자(a prophet)”(934)라고 평한 것은 비꼬는 말이지는 하지만 적절한 지적이다. 그는 실제로 지문을 이용해 살인범을 잡고, 또한 Luigi의 손금을 보고 그의 이전의 행적을 알아냄으로써 자신의 이런 두 가지 능력을 증명한다. 그런데 그의 이런 과학 정신에는 그것을 지탱시켜줄만한 참된 도덕적인 판단이 밑받침되어 있지 않다. 그가 지문 채취를 하는 근본 동기는 진지한 과학적 정신에 있다기보다는 단순히 지적 호기심 때문이다. 따라서 그는 Driscoll 판사의 살인을 추적할 때조차도 그것을 “순전히 외면적인 문제로, 꼭같이 외면적인 진부한 해결책을 요구하는 것(a purely external problem, requiring an equally external ready-made solution)”¹⁴⁾으로만 다루며 그런 살인을 물고을 수밖에 없었던 Tom의 딜레마나 더 나아가 Dawson's Landing이 안고 있는 노예제도의 모순과 죄에 대한 천착에까지는 이르지 못한다. 그는 기존의 질서가 위협받는 데 마음을 쓰고 그 질서를 깨뜨린 사람들을 옹호하지만 그 질서가 지닌 본질적인 부도덕성에는 눈을 감는다. 그런 면에서 그는 본인이 의도했던 않았던 간에 기존체제를 충실하게 수호하는 위치에 서게 되며 그 너머에 있는 더 큰 진실을 볼 능력이 없다.

Wilson은 궁극적으로 보수주의자라고 할 수 있다. 그의 보수주의는 Driscoll 판사의 경우처럼 호전적인 측면을 지니지는 않지만, 그 역시 기존의 사회적 전통이나 노예제도 같은 체제를 아무런 회의도 없이 옹호한다. 그는 Dawson's Landing에서 소외된 채 주변인적인 위치에 있으면서 그 체제에 들어서기 위해 끊임없이 애를 쓴다. 그러므로 그는 그 시의 민주당으로부터 시장직에 출마할 것을 제의받자 몹시 기뻐하며 기꺼이 받아들인다. 그리고 이것을 기화로 해서 그는 급속도로 그 사회체제의 중심부로 들어선다. 그러나 그가 그 사회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어 따라 그가 그때까지 그나마 지켜왔던 최소한의 “도덕적 자유(the moral freedom)”¹⁵⁾마저 상실하고 영원히 “성공한 사람(a made man)”(995)이 된다. 따라서 그것이 그가 지닌 한계이며, 결론적으로 볼 때 그가 자신의 소망에 따라 그 체제에 완전히 들어선 것은 그에게는 비극적인 결말이다.

‘강 아래’에서의 흑인 노예들의 상황은 Roxy의 끔찍한 경험에서 알 수 있듯이 열악하기 그지없다. 그들은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생존에 대한 보장도 없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착취를 당한다. 농장주들은 흑인들을 죽지 않을 정도로 혹사를 하며 그들의 노동력을 극대화하고 반항을 억누르기 위해 끊임없이 채찍질을 한다. 더구나 이러한 착취에 따른 노예들의 탈출을 막기 위해 1850년에 ‘도망 노예법(Fugitive Slave Acts)’이 제정되어 탈출한 노예들을 북부까지 추적해 잡을 합법적인 권리까지 획득했다. Roxy 역시 ‘강 아래’에서 탈출해 Tom이 묵고 있는 St. Louis로 왔을 때 이 범망의 추적을 피해 쫓기는 몸이 된다. 그만큼 남부오지의 노예제도는 착취하는 백인이나 착취를 당하는 흑인들의 인간성을 말살하는 극도로 반문명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그런데 이 ‘강 아래’ 농장지대의 노예제도는 주인과 노예가 직접 맞부딪치는 구조가 아니라

14) George E. Toles, p.74.

15) James E. Caron, “Pudd'nhead Wilson's Calendar: Tall Tales and a Tragic Figure,” *Nineteenth Century Literature*, 1982, March, 36(4), p.469.

그들 사이에는 노예 감독이라는 계급이 존재한다. 그들은 주로 가난한 백인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주인과 노예 사이에서 “흑인들의 증오에 대한 완충물(buffers for black hatred)”¹⁶⁾ 역할을 한다. 농장주들은 이 잔인한 감독들을 통해 노예들을 착취하는 한편 노예들의 증오를 차단하고 자신들은 노예들에게 관대한 주인으로서 노예들의 신뢰와 외경심을 끌어낸다. 또한 가난한 백인들을 노예 감독으로 이용함으로써 두 세력 사이의 유대를 막는다. 이런 노예 감독들의 잔인한 모습은 Roxy의 설명에서 생생하게 드러난다.

그 감독도 아마도 뉴잉글랜드 출신일거다. 그라고 남부에서는 누구나 거기 무슨 뜻인지 안데이. 가들은 검둥이를 죽도록 부려먹는 법을 알제. 그라고 검둥이들을 때리는 법을 알지려. 가들의 등이 빨래판맨치로 매자국이 날 때까지 가들을 때린다카이.

Dat overseer wuz a Yank, too, outen New Englan', en anybody down South kin tell you what dat mean. Dey knows how to work a nigger to death, en dey knows how to whale 'em, too—whale 'em till dey backs is welted like a washboard. (970)

이러한 가히 악몽이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흑인들은 오히려 서로간에 더 강한 인종적인 결핍을 보여준다. Roxy가 감독으로부터 잔인한 착취를 당할 때 다른 흑인 소녀가 위협을 무릅쓰고 그녀에게 먹을 것을 훔쳐다 주며, 또한 그 소녀가 탄로나서 심한 매질을 당하자 Roxy는 분노에 못이겨 감독을 때려눕히고는 탈출한다. 그리고 그녀를 추적하러 나선 흑인들은 시간을 질질 끌어 그녀의 탈출을 도와준다. 그들은 이런 저항을 통해 자신들의 존재를 확인하며 잔인한 남부의 범죄에 대한 증언자가 된다.

Dawson's Landing에서 흑백의 관계는 '강 아래'와는 상당히 다르다. 이곳에서는 앞에서 이미 검토했듯이 그 관계는 주로 백인들에 의한 위협과 온정주의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 결과 흑인 노예들과 백인은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밀착되어 있다. 백인들에 대한 흑인의 저항은 크게 나타나지 않으며 굳이 찾자면 흑인들이 흔히 저지르는 사소한 도둑질에서 그 흔적을 찾을 수 있다. 반면에 흑인들은 백인들과 맞부딪침으로써 오히려 백인에 대한 강한 동경을 지니며 그들을 모방하려는 서투른 몸짓을 보여준다. 따라서 그들은 '강 아래'보다 정신적으로나 문화적으로는 백인 세계에 훨씬 더 익숙되어 있다. 즉 Dawson's Landing에서 흑인들은 '강 아래'에서보다는 불안하게나마 좀더 안락한 생활을 이어갈 수 있지만 그들이 지닌 모든 가치의 척도는 전적으로 백인적인 것이다. 이러한 그들의 모습은 특히 Tom의 끊임없는 학대를 아무런 저항 없이 견디는 Chambers에게서나 백인 세계에 대해 강한 동경심을 지닌 Roxy에게서 충분히 볼 수 있다.

Roxy는 남부 노예제 사회의 비극적인 증인이다. 그녀는 겉모습으로는 여느 백인들과 전혀 다를 것이 없으면서 단지 몸 속에 흑인의 피가 흐른다는 이유 때문에 노예로 살아가야 한다. 그러므로 그녀는 완전한 백인도 아니며, 완전한 흑인이 될 수도 없다. 이런 그녀의 곤경은 Chambers가 그녀에게 자신들은 “모조 백인(imitation white)”이며 “모조 검둥이(imitation niggers)” (920)라고 말할 때 극적으로 드러난다.

그녀는 노예들을 부리고 위협하는 백인을 두려워하고 의심하고 미워하기도 하지만 다른 한

16) Howard Zinn, *A People's History of the United States*(London: Longman, 1980), p. 172.

편으로는 그들을 동경하고 모방하며 그들에게 비굴한 모습을 보인다. 그러면서도 다른 흑인들에 대해서는 “오만하고 건방진 태도(a high and ‘sassy’ way)” (896)를 지닌다. 그뿐만 아니라 그녀는 백인들의 가치관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그녀는 Tom이 결투를 하기를 거절했다는 말을 듣고서 그를 더없이 경멸하며 그로 하여금 그런 수치스러운 태도를 취하게 한 것은 그의 피 속에 있는 32분의 1이라는 검은 피라고 말한다. 그리고 그녀가 Tom에게 그의 출생의 비밀을 폭로할 때도 그가 아버지가 누구냐고 묻자 Cecil Burleigh의 혈통에 대해 장황하게 늘어 놓는다. 그리고는 Tom에게 “이 시에서 니만큼 명문 출신의 검둥이는 달리 없다(Dey ain’t another nigger in dis town dat’s as high-bawn as you is)” (928)라고 자랑스러워한다. 결국 그녀의 이런 그릇된 우월의식은 백인들의 도덕률과 가치를 서투르게 모방하여 내면화한 때문이며 이런 과정을 통해 그녀는 백인들의 지배체제에 더욱 견고하게 얽매게 된다. 그녀는 육체적으로는 흑인으로 살아가면서도 흑인이 되기를 거부함으로써 자신의 정체성(identity)을 상실하고 백인 세계의 변두리를 맴돈다. 더구나 이런 그녀의 모습은 그녀가 아이 바뀔치기라는 엄청난 일을 하고나서 스스로 변명할 때 일전에 목사에게서 들은 어느 영국 왕의 이야기를 회상하고 위안을 느끼는 데서 뚜렷하게 드러난다.

그건 죄가 아니야. 백인들은 그런 짓을 해왔어! 그건 죄가 아니야. 맹세코 그건 죄가 아니야! 가들은 그것을 했어! 그래. 그리고 가들은 또 모다 중에서도 가장 높은 신분이었제. 임금님아이가!

‘Tain’t no sin—white folks has done it! It ain’t no sin, glory to goodness it ain’t no sin! Dey’s done it—yes, en dey was de biggest quality in de whole bilin’, too—kings! (901)

사실 그녀의 아이 바뀔치기는 그녀의 비극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그녀는 설부르게 아이를 바뀔치기함으로써 자기 아들을 노예의 신분에서 해방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녀는 그런 행위를 통해 자기를 배척하고 학대하는 백인에게 보복을 하려고 한다. 그러나 그 결과는 그녀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다. 그녀는 도박빚에 물린 Tom의 파멸을 막기 위해 자기 자신을 ‘강 아래’ 팔지 않을 수 없게 되며 더 나아가 끝내 Tom이 ‘강 아래’ 팔려가는 운명을 지켜보아야 한다. 그런데 그녀가 복수하려 했던 백인 사회는 아무런 변화를 겪지 않는다. 이런 뜻밖의 결과가 초래된 것은 물론 그녀가 처음부터 막연히 위협을 느낀 Wilson에게 있지만 문제의 핵심은 그것이 아니다. 그녀는 백인의 지배구조가 지닌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녀는 인간의 모든 양심과 도덕성 뿐만 아니라 애정까지도 말살하는 남부 노예제도의 잔인한 속성을 깨닫지 못했다. 그녀는 단지 Tom을 백인으로 만들게 되면 그가 그녀를 구원해 주리라는 환상을 지닌 것이다. 그러나 자기 주인이 Tom이 되었던 Chambers가 되었던 그들은 백인 지배체제의 일원일 뿐이며, 노예제도 자체에 대한 이해가 없이 체제에 편승한 저항은 기존의 질서에는 아무런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없다. 설사 그녀의 계획이 성공했다 할지라도 개인의 선의라는 것은 제한된 소수의 사람들에게 노예제도의 고통을 일시적으로 완화시켜주는 것은 될지언정 그 이상 아무런 의미를 지니지 못한다. 그런데 오히려 그녀는 개인적으로 볼 때 Tom을 자신의 주인으로 만듦으로써 “아기와 어머니 사이의 무서운 장벽(a dreadful barrier between child and mother)”¹⁷⁾을 쌓게 되어 모자간의 정상적인 관계를 완전히

17) F.R. Leavis, p.136.

파괴해 버리게 된다. 그녀는 Tom에게 강한 모성애를 지니고 있지만 그의 파렴치하고 잔인한 행위 앞에 그녀의 애정은 변변히 좌절당하고 분노로 바뀌며 때로는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그를 위협하고 적대시해야만 하게 된다. 그러므로 비록 그녀가 아이 바뀔치기를 통해 노예제도의 굴레에서 벗어나 자유를 획득하려 했다 하더라도 그녀가 생각한 자유라는 것은 백인들이 쳐놓은 틀을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Tom은 백인 사회가 지닌 부도덕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그는 “바뀌치기한 아주 초기부터 나쁜 아기(a bad baby from the very beginning of his usurpation)”(903)였으며 그의 이런 비뚤어진 성격은 평생을 두고 계속된다. 그는 Chambers를 잔인할 정도로 학대하고 Roxy에게 온갖 무례한 말을 퍼붓고 그녀의 따귀를 거침없이 때린다. 그러면서 싸움에서는 비굴하며 도박으로 지새고 도둑질을 일삼는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Roxy가 자기 어머니라는 것을 알았을 때도 그녀를 이용하고 끝내는 그녀를 ‘강 아래’로 판다. 그리고는 그녀가 그곳에서 탈출한 것을 알았을 때는 그녀를 원망하고 그녀를 추적하는 사람에게 그녀를 잡는데 도와주기로 약속한다. 이런 그의 끝없는 악행의 뒤에는 물론 남부의 노예제도가 있다. 그는 그 사회가 낳은 한 사람의 저열한 인간이며 또한 그 노예제도가 지닌 타락한 힘의 표현이다. 즉 그의 이런 악행은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의 것만이 아니라 구조화된 사회의 폭력성이 그의 행위를 통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일 뿐이다.

물론 이런 그가 자신의 출생의 비밀을 알았을 때 겪는 충격은 자못 심각하다. 여기서 그는 비로소 한 인간으로서 흑인의 고통을 인식한다. 백인으로서의 그가 단 한번도 생각해 볼 수 없었던 문제가 극적으로 폭발한 것이다.

왜 검둥이와 백인이 만들어졌나? 창조되지 않은 최초의 검둥이가 어떤 범죄를 저질렀기에 출생의 저주가 선고되었는가? 그리고 왜 백인과 흑인 사이에 이 무서운 차이가 만들어졌는가? 오늘 아침에는 검둥이의 운명이 너무나 곤고해보이는구나! 하지만 어제 밤까지만해도 그런 생각은 전혀 내 머리에 들지 않았지.

Why were niggers and whites made? What crime did the uncreated first nigger commit that the curse of birth was decreed for him? And why is this awful difference made between white and black? ... How hard the nigger's fate seems, this morning!—yet until last night such a thought never entered my head. (929)

그러나 그의 이런 각성은 단지 순간적인 것일 뿐 그의 인성에는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 그는 이미 근본적으로 도덕성이 마비되고 자신의 운명에 대해 냉철하게 판단할 지적 능력도 갖추지 못한 인간이다. 그는 남부라는 체제가 낳은 꼭두각시 같은 인물로 Roxy처럼 애초에 그에게 무엇인가 기대한 것이 있다면 그야말로 “아름다운 꿈(beautiful dream)”(922)일 뿐이다.

이에 비해 Chambers는 또 다른 면에서 남부 노예제도가 낳은 자기모순을 보여준다. 그는 평생 노예로 산 까닭에 읽지도 쓰지도 못하며 그의 행동과 언어는 모두가 그대로 흑인 노예의 것이다. 따라서 이런 그가 어느날 갑자기 주인이라는 원래의 자리에 돌아왔을 때 그는 희극적인 차원을 넘어서 비극적인 모습을 보인다. 그리고 그를 통해 노예제도가 인성을 얼마나 왜곡시키고 타락시킬 수 있는 가를 보여준다. 결국 처음부터 주인과 노예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어느 쪽으로도 길들여질 수 있음을 그에게서 다시 확인하게 되며, 그러한 확인

은 더 나아가 인종차별에 바탕을 둔 남부의 노예제도가 존립할 수 있는 어떤 근거도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있는 것이라고는 인간의 편견과 사악함과 탐욕이다.

III

지금까지 Dawson's Landing이라는 미국의 한 남서부 공동체와 그곳의 백인간 및 흑백간의 관계에 대해 검토해보았다. 우리가 위 검토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남북전쟁 이전의 결보기에는 잘 짜여져 있고 평온해 보이는 이 작은 도시가 사실은 많은 균열이 나 있으며 잠재적인 폭발력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그곳은 북부와 남부오지의 완충지대에 자리잡고 있어서 자체의 안정된 체제를 지니기가 쉽지 않다. 그곳은 스스로 지닌 노예제도의 모순을 남부오지의 잔인한 노예제도에 대한 대비를 통해 무마하고 어렵게 도덕적인 정당성을 확보하려 한다. 또한 북부로부터 밀려오는 산업문명의 위협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그곳은 버지니아 일급가문과 보통 시민들과 흑인 노예라는 그 나름대로의 계급적 질서를 바탕으로 그 체제를 견고하게 하려고 한다. 게다가 그곳은 본질적으로 지극히 보수적인 세계이다. 물론 그 보수성은 남과 북에서 다가오는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자구책이지만 그렇다고 그 자체의 성격을 하나의 틀 속에 넣기는 어렵다. Driscoll 판사로 대변되는 버지니아 일급가문의 보수성은 눈에 띄게 호전적이다. 그들은 자체의 체제에 위협이 될 것은 어떤 것도 용납할 수 없는 집단이다. 그것은 그 집단이 변화에 가장 약한 세력이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일반인들의 보수성은 특별히 눈에 띄는 특성을 지닌 것은 아니다. 그들은 다소 속되며 귀족계급의 여론에 쉽게 좌우된다. 그리고 흑인에 대해서는 일상적인 온정주의를 내보인다. 그러나 그들은 그 체제가 지닌 모순에 대해, 특히 노예제도에 대해 어떤 도덕적인 의문도 제기하지 않는다. 물론 Wilson과 같은 국외자의 위치에 선 사람은 그 사회에 대해 비판적인 거리를 유지할 가능성이 있지만 그의 강한 동화욕구로 해서 실패한다. 따라서 그가 궁극적으로 그 사회에 편입되는 것은 “단지 그와 그를 거부한 공동체와의 시민의 평화(civil peace only between him and the community which rejected him)”¹⁸⁾일 뿐이다. 그외에 그가 남긴 것이 있다면 재판을 통해 부도덕한 남부 공동체의 부도덕함을 역설적으로 백일하에 드러내보인 것밖에 없다. 그 사회는 Tom의 엄청난 사건에도 불구하고 자체의 체제에 대해 단 한번의 의미있는 반성도 없이 다시 아무런 일도 없었다는 듯이 일상의 생활로 돌아가 버린다. 흑인들은 상대적으로 ‘강 아래’ 보다는 안락한 생활을 한다는 것 때문에 역시 보수적이다. 그들은 백인들에 대한 별다른 저항을 보여주지 않으며 오히려 그 세계를 동경하고 모방하려 애쓴다. 물론 그들은 자유와 해방을 절실하게 바라고는 있지만 그것을 위해 저항하기보다는 백인들의 온정에 기대려는 듯하다.

결국 이런 다양한 분화의 가능성을 배제한 세계가 남북전쟁 이후, 특히 1890년대에 어떤 식으로 분열되어 갈 것이며, 백인과 흑인간의 인종적 갈등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는 어느정도 짐작이 가능하다. 백인들은 흑인들의 권리 주장이 자신들의 양보의 한계를 넘어 확장될 때, 필연적으로 위협과 박탈감을 느끼게 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흑인들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는 온정주의는 쉽게 그들에 대한 적대의식으로 전환될 것이며, 더구나 호전적인 보수

18) Leslie A. Fiedler, "As Free as Any Cretur ..." (1955), Henry Nash Smith, p.138.

주의는 광적인 흑인혐오(negrophobia)로까지 나아갈 것이다. 또한 흑인들의 상황을 보자면, 뚜렷한 인종적인 각성이 결여되고 이미 상당한 정도로 백인 체제에 편입된 그들이 1890년대에 온건과 타협의 방향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이 Twain의 Dawson's Landing에서 우리가 미루어 볼 수 있는 현실적인 한 모습이다. Twain은 Dawson's Landing이라는 한 공동체를 의미있게 그려냄으로써 미국 사회가 지닌 공동체의 정체성 문제, 노예 문제는 물론이고 더 나아가 인간의 본성에 대한 문제를 우리에게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Bibliography

- Caron, James E. "Pudd'nhead Wilson's Calendar: Tall Tales and a Tragic Figure." *Nineteenth Century Literature*. 1982, March, 36(4), pp.452-470.
- Cash, W.J. *The Mind of the South*(1941). New York: Alfred A. Knopf, Inc., 1968.
- Chase, Richard. *The American Novel and Its Tradition*(1957). Baltimore: The Johns Hopkins Univ. Press, 1980.
- Fiedler, Leslie A. *Love and Death in the American Novel*(1960). New York: Stein and Day, 1982.
- Howe, Lawrence. "Race, Genealogy, and Genre in Mark Twain's *Pudd'nhead Wilson*," *Nineteenth Century Literature*. 1992, March, 46(4), pp.495-516.
- Leavis, F.R. *Anna Karenina and Other Essays*(1967). London: Chatto & Windus, 1973.
- Mitchell, Lee Clark. "'De Nigger in You': Race or Training in *Pudd'nhead Wilson*?", *Nineteenth Century Literature*. 1987, December, 42(3), pp.295-312.
- Schmitter, Dean Morgan. *Mark Twain: A Collection of Criticism*. New York: McGraw-Hill Book Co., 1974.
- Smith, Henry Nash. *Mark Twain: A Collection of Critical Essays*. Englewood Cliffs: Prentice-Hall, Inc., 1963.
- Toles, George E. "Mark Twain and *Pudd'nhead Wilson*: A House Divided." *Novel: A Forum on Fiction*. 1982, Fall, 16(1), pp.55-75.
- Twain, Mark. *The Autobiography of Mark Twain*(1917). ed. Charles Neider. New York: Dell Publishing Co., Inc., 1970.
- _____. *The Family Mark Twain*. New York: Harper & Brothers Publishers, 1935.
- Zinn, Howard. *A People's History of the United States*. London: Longman, 1980.
- 이보형. 『미국 역사의 새 발견』. 서울: 소나무, 1991.